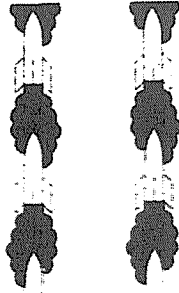


## 電子工業日誌



〈 '94. 8. 1~8. 29〉

8. 1 : 과기처, 연구개발 체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화를 촉진키 위한 기반구축 및 각종 제도를 각각 개선해 나아갈 방침이라고.

8. 2 : 최근 유럽연합 지역에서 ISO-9000 인증 획득 의무화 품목이 늘어나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무역거래 조건으로 ISO9000 인증을 요구하는 등 ISO9000 인증수호가 가속화 됨에 따라 품질경영 체제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ISO-9000 인증 획득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품질경영진단사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.

8. 4 : 산은, 실물경기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올 전자산업은 엔화강세의 지속 전망과 업계의 수출확대 노력이 강화되면서 하반기중 26.8%의 산업생산 증가율을 기록 연간 27.7%의 생산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라고.

8. 6 : 상공자원부, '95년도 기술개발 정책방향은 전체 산업기술 자금의 지원 규모를 올해의 3,098억 4,200만원 보다 배이상 늘어난 6,685억 4,900만원을 책정했다고.

8. 10 : SERI, 문서·서적 등 각종 자료를 자동으로 읽어들이 WP에 문자를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편집할 수 있는 S/W(트레상스 OCR)를 한국하이테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.

8. 10 : ETRI, 최근 통신시스템이 고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품고장률 등에 관한 신뢰성을 제공해 주는 신뢰성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용에 들어갔다고.

8. 11 : 상공자원부, 총40억원을 투입 반도체설계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정부, 민간업체 및 학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(안)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.

8. 11 : 과기처, 2억원을 투입, 지난 '82년부터 국책과제로 추진해 온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보고서에 관한 DB를 오는 10월까지 구축 연구전산망을 통해 기업 및 연구소에 제공키로 했다고.

8. 12 : 상공자원부, 업종별로 생산 및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별로 산기지원센터를 설립, 기술관련 자원을 기술역량이 가장 큰 분야 및 기관에 집중시킴으로써 기술혁신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네트워크형 산기혁신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.

8. 12 : 정부, 세계 최고의 첨단 영상 기술을 확보, 육성해 나아간다는 방침아래 올해부터 첨단 영상산업 관련 S/W, H/W 기술 및 스텐트맨을 대체할 수 있는 영화 촬영용 로봇기술 등의 개발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고.

8. 13 : ETRI, 코드분할 다중 접속(CDMA)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에 들어갈 핵심부품인 「비터비 복호기(VITERBI decoder) ASIC」을 개발 했다고.

8. 18 : ETRI,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국제회의 운영 전산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.

8. 23 : 정부, 내년도 시행 예정인 CATV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과 한국형 CATV 시스템 II의 개발과 관련 230억원을 비롯 총 430억원을 투입, 금년말에 착수 '97년말 제품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라고.

8. 24 : 체신부, 무선통신기기 형식검정을 단체·일반통신사업자, 기기 제조업자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시험기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.

8. 24 : 체신부,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오는 '97년까지 총 1,3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한편, '97년까지 2조 2,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고.

8. 26 : 상공자원부,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기반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S/W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 했다고.

8. 29 : 상공자원부, '96년 발효 예정인 국제환경규격(ISO 14000)에 대비, 국가 차원에서 조기 대응체제를 갖추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기관간에 협력체제를 다지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.